

## 「靈樞·營衛生會」를 중심으로 營衛·三焦에 관한 소고

金基郁\* · 金正浩 · 朴炫局<sup>1)</sup>

東國大學校 韓醫科大學 原典·醫史學教室

東國大學校 韓醫科大學 韓醫學研究所

### 中文摘要

### 以《靈樞·營衛生會》为中心探讨对于營衛·三焦

对于營·衛氣循環的《黃帝內經》記載中最多的內容是衛氣在脈外營氣在脈中。可是，仔細觀察《內經》的營·衛氣的循環有一些差異。《衛氣行》里，根據12時辰，衛氣白天以陽分周行25次序，夜天陰分周行25次序，隨着脈循環。對營氣的循環上，記載《營氣》隨着12經脈的次序增加督脈和任脈，“常營無已，終而復始”。而且《營衛生會》里說，“太陽主內，太陰主外”，這個意思是，主管內的太陽就是手太陰，從手太陰開始循環營氣，主管外的太陽就是足太陽，從足太陽開始循環衛氣，所以不同的循環體系是區別脈的內外，而并合衛·營氣的循環，結果《營衛生會》論說了衛氣被推到脈外而變成營氣中心的循環體系。

三焦的功能通過《五臟別論》和《本輸》以一個器官，鄰接膀胱作用調節水分。伯高立足于人體解剖的知識成果，認為營·衛氣的性質和作用是不同的兩種之氣，分類兩焦的概念胃的上·下焦，可以想各種有不同的出口，所以假定三焦的具體的位置。可是，兩焦的問題通過《平人絕谷》，《五味論》顯出初步的上·中·下之三個焦。

在《營衛生會》里這樣的觀念并合而記載三焦概念和營·衛氣的發出經路。針對的說，五臟是單一的器官而三焦不是器官，因此三焦變遷了作用領域的觀念。

**Key Words :** 靈樞·營衛生會, 營氣, 衛氣, 三焦.

\* 교신저자 : 김기욱, 경북 경주시 석장동 707 동국대학교 한의과대학. E-mail : kkw@dongguk.ac.kr. Tel : 054-770-2664

## I. 서론

『靈樞』 「營衛生會」篇에 나타나는 내용은 『甲乙經』 권1에는 「營衛三焦」, 『黃帝內經太素』 卷第12에는 「營衛氣別」(仁和寺本), 『類經』 권8에서는 「營衛三焦」라는 제목이 붙어있어 이 편의 내용이 영위와 삼초의 내용을 기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편은 황제와 기백의 문답형식으로 되어 있으며, 수곡이 위에 들어와 영기와 위기가 어떻게 생성되고, 어떻게 정의되며, 어떻게 운행되며, 어디에서 나오는지 설명하고, 삼초와 어떻게 연계되는지에 관하여 설명하였다.

『太素』 권제12 「營衛氣」의 제목 아래 「營衛氣別」, 「營衛氣行」, 「營五十周」, 「衛五十周」의 소제목을 두어 영위의 모든 것을 개괄하였는데, 이는 『靈樞』의 「營衛生會」, 「營氣」, 「邪客」, 「陰陽清濁」, 「五亂」, 「五十營」, 「衛氣行」에 각각 기술되어 있다.

영기와 위기의 생성은 수곡이 위에 들어와 그 精氣가 폐로 전해지고 淸한 것이 쐐이 되어 맥 속을 행하고 濁한 것이 衛가 되어 맥 바깥으로 끊임없이 행하며 50周行하며 천지의 운행규율과 같이 한다고 하였다. 영기와 위기를 논할 때에는 대체로 그 순행을 언급하였지 이것이 어디에서 發出하는지에 대한 언급은 드물다.

고대로부터 음식을 섭취하면 이것이 어떤 경로로 인체를 영양하는지에 관하여 관심을 가졌고, 이는 해부학적인 관찰을 통하여 유추하였을 것이다. 동양의 전통의학에서는 영위의 개념을 설정하여 이를 설명하였다. 그리고 영기와 위기가 성질과 작용 모두 다른 두 가지 氣라고 가정한다면 각기 다른 출구를 가진다고 생각할 수 있고 여기에 삼초라는 구체적인 위치를 상정하였다. 따라서 논자는 쐐·衛氣와 三焦의 관계에 대해 「營衛生會」篇을 중심으로 간단하게 고찰하기로 한다.

## II. 본론

### 1. 營氣와 衛氣의 循環

『內經』에서는 「精氣」, 「神氣」, 「宗氣」, 「陽氣」, 「陰氣」, 「經氣」, 「脈氣」, 「血氣」, 「穀氣」, 「淸氣」, 「濁氣」, 「胃氣」 등 이외에 「營氣」, 「衛氣」의 설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營」과 「血」, 「衛」와 「氣」에는 차이가 없고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다. 그렇다면 고인은 왜 따로 「營衛」라는 개념을 세웠을까? 고인은 강이나 호수, 日月星辰 등 자연현상에 대한 관찰을 통하여 인체의 기혈운행도 끊임없이 순환하는 것으로 보았고 천지의 운행법칙과 인체의 기혈운행을 상응시켰다(「與天地同紀」). 『太素』 「營衛氣」에 기재된 내용도

이러한 순환생리에 관한 내용을 類編한 것으로 營, 衛는 “周行”을 의미하기 때문에 “五十周”라는 소 제목을 붙였다.

『靈樞』 「邪客」에서 “五穀入於胃也. 其糟粕·津液·宗氣, 分爲三隧”<sup>1)</sup>하며 宗氣는 胸中에 쌓였다가 목구멍으로 나가고 心肺를 통하여 호흡을 행한다고 하고 이어서 營氣는 “泌其津液, 注之於脈, 化以爲血, 以榮四末, 內注五臟六腑, 以應刻數焉”<sup>2)</sup>하고 衛氣는 “出其悍氣之慄疾, 而先行於四末分肉皮膚之間, 而不休者也, 晝日行於陽, 夜行於陰 ……”<sup>3)</sup>이라 하였다. 즉 營氣와 衛氣는 宗氣의 원동력에 의해 營氣는 100刻의 시간에 응하고 衛氣는 주야 각각 25度로 陰陽經에 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素問』 「平人氣象論」에서 “胃之大絡, 名曰虛里, 貫膈絡肺, 出於左乳下, 其動應衣, 脈宗氣也”<sup>4)</sup>라 하여 宗氣는 胃의 大絡을 통하여 좌측 乳下로 나온다고 하여, 胃에 근원한다고 하였으며, 『靈樞』 「五味」에서도 “穀始入於胃, 其精微者, 先出胃之兩焦, 以溉五臟. 別出兩行, 營衛之道. 其大氣搏而不行者, 積於胸中, 命曰氣海”<sup>5)</sup>라 하여 胃에 들어온 水穀의 精微함이 胃의 上·中焦를 통하여 營衛의 길로 행하는데 이는 大氣가 모여 胸中에 쌓인 것을 氣海라 하였다. 따라서 宗氣는 胸中の 氣, 氣海이면서 胃와 연계를 가지고 營氣와 衛氣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天度를 인체에 대응시켜 이들의 순환체계를 구축한 것으로 보인다.

『營衛生會』篇에서 “清者爲營, 濁者爲衛”<sup>6)</sup>라 하였는데, 일반적으로 清과 濁이 바뀌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靈樞』 「陰陽清濁」篇에서 “受穀者濁, 受氣者清, 清者注陰, 濁者注陽, 濁而清者, 上出於咽, 清而濁者, 則下行 ……” 氣之大別, 清者上注於肺, 濁者下注於胃, 胃之清氣, 上出于口, 肺之濁氣, 下注于經, 內積於海”<sup>7)</sup>라 하여 受穀과 受氣에 따른 清濁의 구분이 있고 胃의 清氣와 肺의 濁氣가 上下로 운행하는 구분이 있는데, 이를 宗氣의 발원지가 胸中에 있고 肺와 胃가 관건이 되어 營衛氣로 나뉘는 특징과 연관시켜 보면 잘못된 것으로만 볼 수 없다.

『營衛生會』篇에는 “營在脈中, 衛在脈外, 營周不休, 五十而復大會”<sup>8)</sup>라 하여 맥의 내외로 영위를 구분하고 주야로 나뉘어 陰二十五度和 陽二十五度로 행한다고 하여 營衛의 運轉을 통합시켜 나타내었다. 그러나 『內經』에 나타나는 營·衛의 運轉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

黃帝와 伯高的 문답체로 되어 있는 『靈樞』 「衛氣行」에서는 태양이 天球의 28宿 사이를 운행하는 12時辰에 따라 衛氣가 밤낮으로 각각 25周하는데, 그 운행차서는 아침에 陽氣가 목표로 나와 足太陽→手太陽→足少陽→手少陽→足陽明→手陽明 순서로 頭部에서 하행하고 다시 目에서 합해져 25주

1) 馬蒔 著, 王洪圖, 李硯青 校, 『黃帝內經靈樞經註證發微』, 北京, 科學技術文獻出版社, 2000, p.341.

2) 上揭書 : p.341.

3) 上揭書 : p.341.

4) 馬蒔 著, 王洪圖, 李雲 校, 『黃帝內經素問註證發微』, 北京, 科學技術文獻出版社, 1999, p.134.

5) 前揭書 : 『黃帝內經靈樞經註證發微』, p.292.

6) 上揭書 : p.159.

7) 上揭書 : pp.238-239.

8) 上揭書 : p.159.



하고, 음으로 운행할 때에는 足少陰經을 통하여 腎으로 들어가 心→肺→肝→脾→腎의 순서로 밤에 25주하여 平旦에 다시 目으로 나온다고 하였다. 이것이 위기의 운행차서로 분명 맥을 따라 운행하는 것이다.

영기의 운행에 대해서는 『靈樞』 「營氣」에서 일반적인 12경맥의 운행차서에 督脈과 任脈을 덧붙여 “常營無已，終而復始”<sup>9)</sup>한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각자의 운행규율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 『營衛生會』에서 “太陰主內，太陽主外”<sup>10)</sup>라 하였는데, 이는 陰陽經을 表裏로 구분한 것이 아니라 內를 주관하는 太陰은 手太陰을 가리키는 것으로 『營氣』에서 手太陰으로부터 영기의 운행이 시작되는 것을 시사하고, 外를 주관하는 太陽은 『衛氣行』에서 足太陽으로부터 위기의 운행이 시작되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이는 전혀 다른 운행체계를 맥의 내외로 구분하고 여기에 營·위기의 운행을 통합시킨 것으로 원래 맥 속으로 운행하는 위기가 맥 바깥으로 밀려나고 영기 중심의 운행으로 변화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 2. 三焦의 含義

三焦라는 말은 최초로 『史記』 「扁鵲傳」에서 나타나며 陽氣가 “別下三焦膀胱”<sup>11)</sup>한다고 하여 三焦膀胱을 함께 나타내었다. 『素問』 「五臟別論」에서는 “夫胃，大腸，小腸，三焦，膀胱，此五者天氣之所生也”<sup>12)</sup>라 하였고, 『靈樞』 「本輸」에서는 “腎合三焦膀胱”<sup>13)</sup>한다고 하고 “腎合膀胱，膀胱者津液之府也……三焦者中瀆之府也，水道出焉，屬膀胱，是孤之府也”<sup>14)</sup>라 하였다. ‘屬膀胱’이라 한 것은 방광과 서로 인접한 위치로 어디인지는 확실치 않다. 이상에서 三焦는 3개의 焦가 아니라 하나의 기관임이 분명하다. 처음에는 三焦는 어떤 단일한 인체기관으로 방광의 인접한 곳에 위치하여 수분을 조절하는 작용이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黃帝內經』에는 복수의 삼초가 압도적으로 많고 아울러 上焦，中焦，下焦의 개념이 출현하였다.

삼초의 개념이 단수에서 복수로 변하게 된 과정을 살펴보면,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黃帝와 伯高的 문답체로 되어 있는 『靈樞』 「邪客」에서 “五穀入於胃也，其糟粕·津液·宗氣分爲三隧”<sup>15)</sup>라 하여 胃에서 소화된 음식물은 각기 宗氣·津液·糟粕으로 나뉘어 3개의 길로 나가고 영기와 위기를 통하여 전신을 운행하고 한다고 하였다. 여기에서는 어디로 나가는지에 대한 통로는 언급하지 않았다.

9) 上掲書：p.153.

10) 上掲書：p.159.

11) 司馬遷撰：『史記』 「扁鵲傳」 서울，景仁文化社，1983，p.2791.

12) 前掲書：『黃帝內經素問註證發微』，p.97.

13) 前掲書：『黃帝內經靈樞註證發微』，p.22.

14) 上掲書：p.22.

15) 上掲書：p.341.

黃帝와 伯高의 문답체로 되어 있는 『靈樞』 「平人絶穀」에서 소화와 胃의 구조와의 관계를 밝혔는데 “胃大一尺五寸 …… 其中之穀，常留二斗，水一斗五升而滿，上焦泄氣，出其精微，慄悍滑疾，下焦于澀澀腸”<sup>16)</sup>이라 하여 精微(즉 營氣)한 것과 慄悍滑疾(즉 衛氣)한 氣를 발설하는 것을 上焦라 하고, 精微의 출구는 하초라 하여 胃의 위쪽과 아래쪽을 각각 가리킨 것이 분명하다.

伯高는 인체해부의 성과에 입각하여(『靈樞』의 「壽夭剛柔」, 「骨度」, 「腸胃」, 「平人絶穀」, 「逆順」, 「五味」, 「衛氣失常」, 「邪客」, 「衛氣行」 등이 모두 黃帝-伯高의 문답체임) 소화, 순환 생리학을 개척하였다. 이때에 도입한 것이 胃의 上焦와 下焦의 개념이다. 이는 胃에서 水穀을 소화시켜 이를 다른 곳으로 내보내는 것을 담당하는 위의 위쪽과 아래쪽에 上焦와 下焦를 想定하였다. 해부학적인 입장에서 수곡의 소화생리를 추구하고 성질과 작용이 다른 營氣와 衛氣에 대해 각기 다른 출구를 모색하게 되었을 것이다.

『靈樞』 「五味」에서 “胃者，五臟六腑之海也 …… 穀始入於胃，其精微者，先出胃之兩焦，以溉五臟，別出兩行，營衛之道”<sup>17)</sup>라 하여 ‘上焦泄氣’라 한 것이 여기에서는 胃의 兩焦로 바뀌었고, 수곡의 정미한 것이 “別出兩行，營衛之道”<sup>18)</sup>이라 하여 각기 따로 나간다고 하였기 때문에 兩焦는 두 개의 출구임이 틀림없다. 兩焦가 上焦, 中焦로 정해지게 되는 것은 시간적인 문제였다.

이러한 변화는 黃帝와 小俞의 문답체로 되어 있는 『靈樞』 「五味論」에 나타난다. “五味入於口也，各有所走 …… 酸入於胃，其氣溢以收，上之兩焦弗能出入也 …… 鹹入於胃，其氣上走中焦，注於脈則血氣走之 …… 血脈者，中焦之道也 …… 辛入於胃，其氣走於上焦，上焦者，受氣而營諸陽者也 …… 苦入於胃，五穀之氣皆不能勝苦，苦入下脘，三焦之道皆閉而不通 …… 甘入於胃，其氣弱小，不能上至於上焦”<sup>19)</sup>라 하여 여기에 이르러 兩焦는 명확히 나뉘어져 上焦, 中焦라 칭하였다. 문제는 下焦인데 下脘은 胃의 하부를 가리킨다. 苦味가 下脘에 들어가면 三焦의 길이 모두 막혀 통하지 못한다고 하였다. 이는 胃의 上·中·下焦를 가리키는지 그렇지 않으면 이전의 三焦 개념인 膀胱에 속하는 것을 下焦라 하고 胃의 上, 中焦와 함께 합쳐 三焦라 하였는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문맥에 따르면 전자를 의미하는 것 같지만 어느 것을 막론하고 『內經』에 나타나는 바로는 「平人絶穀」을 거쳐 「五味論」에 이르러 上·中·下 3개의 焦에 대한 개념이 갖추어졌고 이를 三焦라 칭하게 되었다.

이밖에 초기 三焦의 개념을 새롭게 下焦의 개념으로 만들어 사용한 것이 「營衛生會」편에 나타난다. 즉 “營出於中焦，衛出於上焦 …… 上焦出於胃上口，並咽以上 …… 中焦亦並胃口，出上焦之後 …… 下焦者，別迴腸，注於膀胱而滲入焉”<sup>20)</sup>이라 하여 上焦에서 衛氣가 나오고 中焦에서 營氣가 나오며 下焦는 大腸에서 분리되어 膀胱으로 스며든다고 하였다.

16) 上揭書 : p.220.

17) 上揭書 : pp.291-292.

18) 上揭書 : p.292.

19) 上揭書 : pp.310-312.

20) 上揭書 : pp.161-163.

上焦는 胃의 上口에서 나와 인후를 따라 횡경막을 통과하여 흉중으로 포산하고 또한 거드랑이로 가서 수태음경의 경계(太陰之分)를 따라 운행하고 돌아 나와 수양명으로 가서 족양명으로 행하는데, 영기의 운행과 함께 하여 음·양 25도씩 일주하고 50도에 다시 수태음에서 만난다고 하였다. 여기에서 위기의 운행은 영기의 결을 따라 함께 운행하는 것으로 설정하였지만 구체적으로 영기와 위기가 어떻게 만나는지에 대한 설명은 없다. 그리고 인체에 열이 있어 수곡의 기가 化(成)되지 못하였을 때라도 땀이 나면 위기가 순행경로를 벗어나 각 부위로 따라 나간다고 하여 汗出하는 곳이 衛氣가 기능하는 장소로 보았다. 이는 영기의 경로에 구애되지 않고 그 기능의 외연을 확장시킨 것이다.

中焦는 上焦의 뒤쪽에서 나오는데 수곡을 받아 들여 糟粕을 걸러 진액을 받아들여 정미한 것으로 변화시켜 위로 肺脈으로 흘러 보내 혈로 변화시켜 經隧로 행하는 것이 營氣라 하였다. 여기에서 血과 氣가 이름을 다르면서 같은 종류인 까닭에 대한 설명을 「營衛生會」편에서 “營衛者精氣也，血者神氣也，故血之與氣，異名同類焉”<sup>21)</sup>이라 하였는데, ‘營衛者精氣也’는 일반적으로 「外臺秘要」에는 營이 없기 때문에 삭제해야 한다고 하였다. 衛-精氣 그리고 血-神氣의 관계에서 血을 營氣로 볼 수 있고 예를 든 汗과 血을 衛氣와 營氣로 보아도 무방하며 이들은 異名同類인 것이다. 그렇다면 인체의 순행체계인 營衛에 대해 구별하여 설명한 의의가 없어지게 되는데, 이는 각자 운행체계를 가진 독립된 기능을 융합하는 과정에서 생기게 되었고 역사적인 한계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難經」 「三十二難」에서 “心者血，肺者氣，血爲營，氣爲衛”<sup>22)</sup>이라 정의하였지만 여전히 후세 영위에 대한 이해에 혼란을 야기시켰다.

“下焦者，別迴腸，注於膀胱，而滲入焉”<sup>23)</sup>에 대해 「千金方」과 「外臺秘要」에서는 ‘下焦者’ 아래에 ‘起胃下管’이라는 말이 있어 胃를 중심으로 三焦로 나눈 기억이 남아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太素」 「營衛氣別」에는 “下焦在臍下，當膀胱上口，主分別清濁而不內”<sup>24)</sup>라 하여 이 문단의 문의에 맞다. 여기에서 大腸에서 걸러진 수액이 下焦를 따라 방광으로 스며든다고 하였는데, 당시로서는 방광에 소변이 모이는 機轉을 몰랐기 때문에 이렇게 추단하였다.

### III. 결론

논자는 본론의 「營衛生會」편을 중심으로 삼초의 개념이 확립되었고 營·衛氣가 어디를 통하여 발

21) 上揭書：p.163.

22) 秦越人 著：『難經集註』，北京，人民衛生出版社，1956，p.55.

23) 前揭書：『黃帝內經靈樞經主證發微』，p.163.

24) 楊上善 著，王洪圖，李雲 校，『黃帝內經太素』，北京，科學技術文獻出版社，2000，p.324.

출하는지를 논술하였다. 그리하여 五臟은 단일한 기관인 반면 삼초는 器官이 아니라 작용영역의 개념으로 변천되었다. 六腑의 傳穀을 기술한 「靈樞」 「腸胃」나 장부를 해부학적으로 설명한 「難經」 「四十二難」에는 삼초가 없지만 이후 삼초는 육부의 하나로 자리 잡게 되었다.

「營衛生會」편의 마지막에 黃帝는 “余聞上焦如霧，中焦如澗，下焦如瀆，此之謂也”라는 말로 끝맺었다. 이에 대한 해석이 구구하고 특히 ‘澗’를 수포라고 해석하였지만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에 대해 이해하기 어렵다. ‘澗’는 물거품(水泡), 오래 담금(久漬), 묻어서 발효시킴(壅埋堆積而醱酵), 향기 짙음(香氣濃) 등의 뜻이 있다. 논자의 생각으로는 이러한 삼초의 모든 특성은 술을 빚는 과정에 비유한 것이 아닌가 한다. 담근 술이 익었을 때 개봉을 하면 霧霧와 같은 길은 냄새를 맡을 수 있고 발효를 통하여 술이 끓는 형태를 澗로 표현하였고 술을 걸러 따르는 것이 瀆이며 최종적으로 남는 찌꺼기가 糟粕이 되는 것과 같이 삼초의 기능을 형상적으로 표현한 것이 아닌가 한다.

#### IV. 참고문헌

1. 楊上善 著, 王洪圖, 李雲 校: 「黃帝內經太素」, 北京, 科學技術文獻出版社, 2000.
2. 馬蒔 著, 王洪圖, 李硯青 校: 「黃帝內經靈樞經註證發微」, 北京, 科學技術文獻出版社, 2000.
3. 馬蒔 著, 王洪圖, 李雲 校: 「黃帝內經素問註證發微」, 北京, 科學技術文獻出版社, 1999.
4. 司馬遷 撰: 「史記」, 서울, 景仁文化社, 1983.
5. 秦越人 著: 「難經集註」,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56.